

## 21. 기계가공업체 세척작업자에게 발생한 비호지킨 림프종

성별	남	나이	44세	직종	생산직	업무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최○○은 1987년 9월 자동차회사에 입사하여 선반작업 및 세척작업 등을 하다가 2004년 10월말 폐렴증세가 생겼고, 11월 호흡곤란 증세로 대학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악성림프종의 폐전이를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 최○○은 87년 자동차 입사시 1년 동안은 엔진제작부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엔진제작부에서의 업무는 주물가공 공정에서 맞지 않는 부분을 선발 및 드릴 등의 기계로 깎아 내는 일이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쇳가루 및 절삭유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그 후 3년간의 작업에 대해서는 건조작업에서 근무하였는데 세척장이라는 작업장에서 자동세차기를 이용하여 세차한 후, 차에 남은 물기와 기름때, 먼지를 신나 및 솔벤트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면장갑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부에 용제의 접촉이 많았다고 하며, 하루 걸레의 사용량이 높이 60 cm 가량 쌓일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다. 신나 및 솔벤트의 사용량은 신나 및 솔벤트 각각 20L (1통)을 3-4일 가량 사용했었다. 사용 중인 솔벤트와 신나를 채취하여 벤젠을 포함한 유기용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솔벤트에서는 벤젠이 8.98 area % 검출되었다.

**3. 의학적 소견:** 흡연력은 20 갑년이며, 과거 특이한 질병력은 없었다. 2004년 10월 중순 경부터 기침, 가래, 발열, 오한 등이 있었으며 같은 해 10월 말 호흡곤란 증세로 동네의원 에서 폐렴 추정 진단 하에 입원치료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림프절 생검 결과 악성 림프종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다. 역형성 대세포 (anaplastic large cell type) 타입으로, 이 유형은 비호지킨 림프종의 2-8%를 차지하는 드문 타입으로 젊은 연령에게 많이 생기며,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4. 결론:** 근로자 최○○의 비호지킨 림프종은

- ① 1987년 입사하여 2004년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되었는데,
- ② 입사 초기 3년간 세척작업 중 신나와 솔벤트를 지속적으로 취급했으며, 이후 3년 동안 수리작업 등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신나 및 솔벤트에 노출되었고,
- ③ 현재 과거 취급한 솔벤트 및 신나의 성분은 알 수 없지만, 현재 같은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서 채취한 솔벤트에서 8.98 area %의 벤젠이 검출되었으며,
- ④ 비호지킨림프종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바이러스 감염이나 투약 등의 경력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